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눔의 사랑들

Summer
2019 VOL. 78



작은 선행으로 새 생명의 기쁨을
이루면 이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나눔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행복입니다.

Korea Marrow Donor Program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여러분의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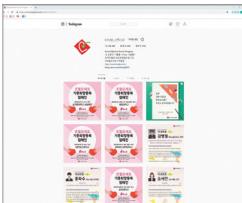
홈페이지
www.kmdp.or.kr



블로그
blog.naver.com/kmdp0311



페이스북
www.facebook.com/kmdp0311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mdp_official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을 원하신다면

①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남·여

② 신청장소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동자동)

수도권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및 경의중앙선 서울역 12번 출구

☎ (02) 737-5533 (안내 2, 기증증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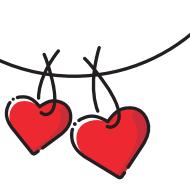
③ 접수시간 : 개인인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 / 단체인 경우 사전에 전화로 협의 후 출장 신청

※ 방문 시 사전에 협회로 전화 주시면 대기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Korea Marrow Donor Program

2019 Summer VOL. 78



- 04** 전문가 칼럼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박충민 팀장



좋은 소식 전합니다

- 18**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대사, '닥터프렌즈'!

- 20** KMDP NEWS

- 2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24** 조혈모세포 관련 통계

- 26** 조혈망인형 만들기

- 27**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에서는



사랑을 나눕니다

- 06**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 기증자 김철현 님



- 08** 조금만 용기를 내어 보세요
- 기증자 김도경 님

- 09** 갑작스럽게 찾아온 감사
- 기증자 양희숙 님

항상 고맙습니다

- 10** 우리 가족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 수혜자 박동현 님(가명)의 아내
- 수혜자 박동현 님(가명)의 첫째 딸
- 수혜자 박동현 님(가명)의 둘째 딸



- 13** 기증자님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 수혜자 박승우(가명)의 아버지

보내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 수혜자 이영준(가명) 어린이



현장 STORY

- 14** 사랑이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기쁩니다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1팀 김태희 코디네이터



- 16** KMDP 대학생 서포터즈 5기
'시나브로'를 소개합니다

- 17** 현혈에서 한 걸음 더,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
조혈모세포 기증
- KMDP 서포터즈 안태환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2019 SUMMER Vol. 78

2019 여름 이야기(통권78호)

2019년 05월 31일 발행

발행인 민우성

편집책임 이영화

편집 박충민

발행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TEL. 02-737-5533 FAX. 02-737-5336, 7

E-mail : kmdp@kmdp.or.kr

홈페이지 : www.kmdp.or.kr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박충민 팀장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악성림프종 등 혈액질환과 특정 대사질환 등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매년 인구 10만 명당 8명씩 발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매년 4천여 명의 환자가 발병하는 셈입니다. 물론 매년 발병하는 모든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소아와 성인 환자를 합쳐 매년 2천여 명 정도의 환자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적합성 항원(HLA)형, 즉 유전자형이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유전자형이 일치할 가능성은 부모와는 5% 이내, 형제자매와는 25% 이내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형제자매가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혈연간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지 못할 경우, 유전자가 일치하는 비혈연 기증자를 찾거나 혈연으로부터 기증받는 반일치 이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혈연간 유전자형이 일치할 가능성은 2만 명 중 한 명으로 만약 국내에서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우리협회와 협약된 미국(NMDP), 중국(CMDP), 일본(JMDP), 대만(BTCSCC)에서 기증자를 찾아 이식을 받을 수 있고, 협약되지 않은 다른 국가에서 기증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을 할수록 국내·외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증희망 등록을 하고 기증 전에 의사를 번복하면 환자는 기증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받을 수 없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확고한 기증 의사가 있을 때 기증희망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환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새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일입니다. 한 가족의 아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일이지요. 2만분의 1의 확률을 뛰고 만난 기적과도 같은 인연의 환자에게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나의 일부분을 나눠줌으로써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답니다.

우리협회를 포함한 5개 등록기관 모두 등록 전, 충분한 1:1 설명을 통해 기증희망 등록을 받고

있으며, 기증 의사 재확인을 위한 문자 발송 등 동의율 향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조혈모세포 기증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설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혈 경험이 있다(95%). • 주위의 권유를 통해 지방적으로 모집기관을 찾아 등록하였다. • 등록기관의 추후관리(홍보지, 문자 등) 접촉이 기증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그중 환자 사연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혈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증에 대한 기부감이 적었다. • 기증 시 고민 사항은 시술의 안정성이다.
활성화 방법	대중매체(TV),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조혈모세포 기증의 구체적인 방법 안내 등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출처: 박충민, 조혈모세포 기증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2016

결과를 종합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대중매체(TV)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독려하여 자발적으로 등록기관을 찾아 등록하게 유도하는 것이 동의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등록 시 헌혈 경험의 유무도 확인하면 좋다’입니다. 따라서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등록기관과 정부, 나아가 기업들과 함께 대중매체(TV) 광고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의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조혈모세포 기증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한 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을 포함한 모든 조혈모세포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골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즉, 고령장기 위주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 기증에 대한 전반적인 장치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혈모세포에 관련한 단독 법률안을 제정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기증 활성화, 기증자 예우 개선 등을 확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면 조혈모세포 기증이 아프고 힘들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가 헌혈처럼 어렵지 않은 기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증 등록까지 해 주시는 분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기증을 꺼리는 분과 그 잘못된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퍼트려 이에 대해 오해가 쌓이는 것, 그리고 ‘내 일이 아닌데 굳이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백혈병 등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는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희망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인식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시 기증의 방법과 과정, 기증의 의미에 대해 신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증자 김철현 님(40대, 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철현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또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1999년, 백혈병에 걸린 군대 동기를 위해 골수기증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는 일치하지 않았죠. 일치자를 찾지 못한 동기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고, 이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평소에 봉사활동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현혈은 꾸준히 해 오고 있지만, 그 외의 특별한 봉사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죠.

기증하시기 전, 혹은 기증희망 등록하시기 전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1999년에 군대 동기를 위해 검사를 받으면서 막연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기증희망 등록하시고 연락이 온 건 얼마나 만인가요?

등록을 했던 건 1999년이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2019년 1월에 연락을 받았죠.



일치하는 환자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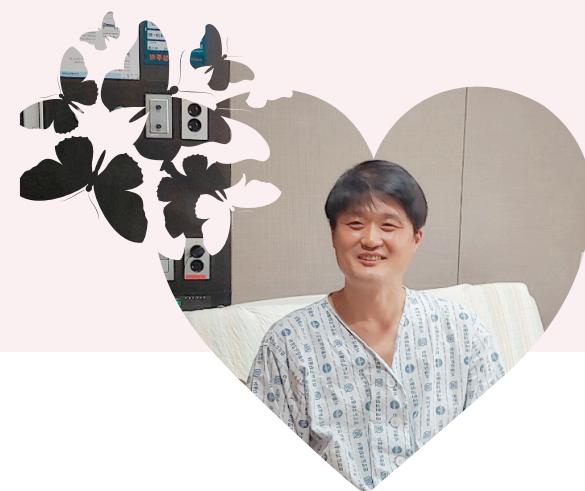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한테?', '나랑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놀랐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놀라기는 했지만 이내 조혈모세포 기증을 결심하고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아내도 힘들겠지만 좋은 일이니 기증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었죠.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방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도 저한테 "아빠는 잠깐 힘들지만 기증받는 사람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기증 결심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기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일단 주변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기증하기 얼마 전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기증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7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인원이 부족해지면 다른 동료들이 조금 더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화재나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직업적 특성상 팀워크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동료들에게 그간의 기증 절차를 설명하니 놀라워하기도 했고, 기증 과정이 힘들지 않았는지, 후유증은 없는지 걱정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도 해 주었죠.



채집 과정이 다 끝났을 때의 기분과 컨디션은 어떠셨나요?

몸에 남아 있던 약간의 불편함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컨디션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요.

기증 이후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혈액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환우들에게 어서 빨리 기증자가 나타나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됐고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기증받으시는 수혜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젊은 청년이라고 들었는데, 하루빨리 완쾌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많은 분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증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그런 기증희망자 혹은 기증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디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기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증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금주하다 보면 기증 전보다 오히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기증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께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증자를 위해 상담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마음가짐이 정말 이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홍보에도 더 신경 쓰셔서 더 많은 사람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증자도 들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보세요

기증자 김도경 님(40대, 여)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청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 CCTV 통합관제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김도경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제 목표죠.

저는 2005년 5월 헌혈의집에 갔다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을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조혈모세포은행 협회 코디네이터 선생님께 연락이 와 다시 떠올리게 됐죠. 그리고 2018년 11월,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잊고 살았던 터라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일치하는 분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쁜 마음이 드는 한편, 왜인지 모를 약간의 두려움도 공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다는 결심은 그대로였습니다. 입장을 반대로 바꿔 생각해 봤죠.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아야 하는 절실한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일은 절대로 망설이면 안 될 일이었죠. 기증 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첫 반응은 “그거 무서운 거잖아?”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나오는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두 제 걱정을 해 주셨고, 아무나 못 하는 일이지 않느냐며 대단하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증 과정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며, 나이가 많은 인연과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기증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변 사람에게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신 수혜자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증을 결정하고 제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또 기증 전 건강검진 덕분에 다시금 건강을 확인할 기회도 얻었죠. 기증 과정 덕분에 제 일상이 두 배로 즐거워졌답니다. 그러니 수혜자님도 혹여나 미안해하지 마시고, 걱정도 부담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그간 못했던 일도 하시고, 하루 하루 즐겁게 보내셔야 합니다! 혹시 누가 아나요? 어디서 또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될지도요. 우리의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힘내세요.

그리고 기증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기증희망 등록을 하고도 기증을 하지 않는 분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보세요. 뿌듯함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이 더 홍보가 돼서 접할 기회가 지금보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이런 건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협회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감사

기증자 양희욱 님(20대, 남)

무더운 여름,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모르는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전화를 받아보니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했을 때는 ‘과연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등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웠죠. 얼떨결에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기증 의사가 있다고 전달하기 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오게 하셨나요. 그래도 제가 결심한 일이고 저를 통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고 나니 제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 건강으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혈모세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기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다니는 교회의 한 친구가 기증 등록의 계기였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친구였음에도 그 친구가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적합한 조혈모세포라는 사실을 알게 돼 혹시나 하고 제 조혈모세포를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조혈모세포가 한 환우분에게 적합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그랬던 듯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들은 제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시는 만큼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증을 받을 분을 위해서도 말이죠.

연락을 받고 최종 기증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

니다.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보건소에서 피를 뽑아 협회로 보내고 기증할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증 5일 전부터 매일 촉진주사를 맞았죠. 촉진 주사는 많이 아플 줄 알았는데 허리 통증만 살짝 있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코디네이터님이 잘챙겨 주셔서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별 탈 없이 두 번에 걸쳐 조혈모 세포를 채취했고, 환우분께 잘 전달되고 이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증 전에도, 지금도 저는 건강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뛰기도 합니다. 시험공부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협회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왜 그리 겁을 먹었는지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이 기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니 기증을 고민했던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게 기증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기증할 기회를 주신 환우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증 전날, 부모님과 병실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요즘도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증을 통해 환우분에게 조혈모세포가 잘 생착돼 완치 판정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두가 하루빨리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아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늘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수혜자 박동현 님(가명)의 가족



〈아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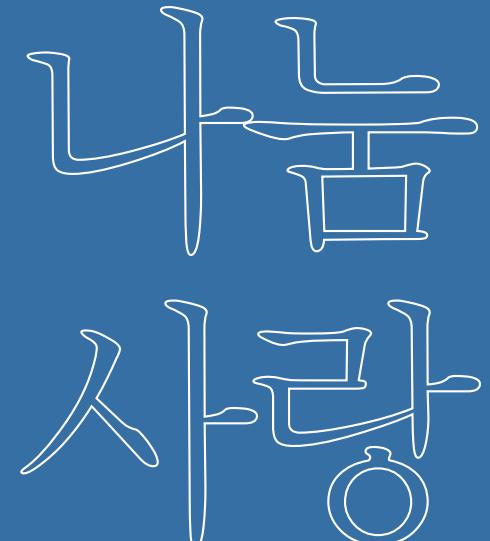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 기증자님께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주셔서 다시 살고 있는
남편의 배우자입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내일은 저희 남편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기증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시때때로 생각만 하고
편지 한 통 쓰지 않았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2009년 봄, 처음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3개월 선고를 받은 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기증자님께서 생면부지의 제 남편에게
귀한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준다고 하셨을 때,
이식받은 후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겼을 때,
정말 무어라 감사의 말과 기쁨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시 세 살, 네 살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훌쩍 자라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병과 기증자님 덕분에
아빠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지난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 하늘 아래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3년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고
회복도 더뎌 고생도 했지만,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덕분에 가족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기증자님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 이 일이 허용된다면
꼭 감사 인사의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딸 편지〉

아빠의 조혈모세포 기증자님께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 아빠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셨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저라면 모르는 사람한테 기증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는데,
아저씨가 그때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엄마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고작 4살이었기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도 그때 사진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은 아빠가 10년 동안 다니던
병원에 마지막으로 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아빠가 회복하게 된 것에는
엄마와 아빠의 노력도 있었지만,
아저씨 덕분도 컸다고 생각해요.
아저씨가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라도
남을 위해서 용기를 낸,
용감하고 멋진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잘 알아요.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신 아저씨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둘째 딸 편지〉

우리 아빠의 조혈모세포 기증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의 둘째 딸이자 막내딸입니다.
저희 아빠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기증자님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 가족에게 세상은 암흑 같았을 것 같아요.
아빠의 병명이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고
밝혀진 건 2009년 초이고,
그때 저는 고작 3살이었죠.
조금 귀여운 얘기를 해보자면
전 그때 외삼촌 집에서 조금 머물렀는데요.
아빠한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항상 무서웠어요. 겁도 많이 났죠.
그래도 외삼촌 집에서 잘 놀았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옛날 아빠 사진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저희를 생각하며

병을 이겨낸 아빠와 아빠를 끌까지 지켜준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과 다름없는
기증자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상에서 모든 고통을 이겨내야 했던
저희 아빠만큼이나
기증자님도 위대한 분이세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편지가 최선이네요.
기증자님은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아야 할
위대한 분이세요.
선뜻 나서기 힘드셨을 텐데
제 가족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엄마, 아빠, 언니에게
행복을 주신 분이잖아요. 제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아빠가 없는
저를 상상해보면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O
VE

항상 고맙습니다

기증자님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수혜자 박승우(가명)의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아이 아빠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 삶의 기회를 기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이가 아프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증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다른 사람의 도움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와 맞는 분을 찾을 수 있었고,
덕분에 조혈모세포를 잘 이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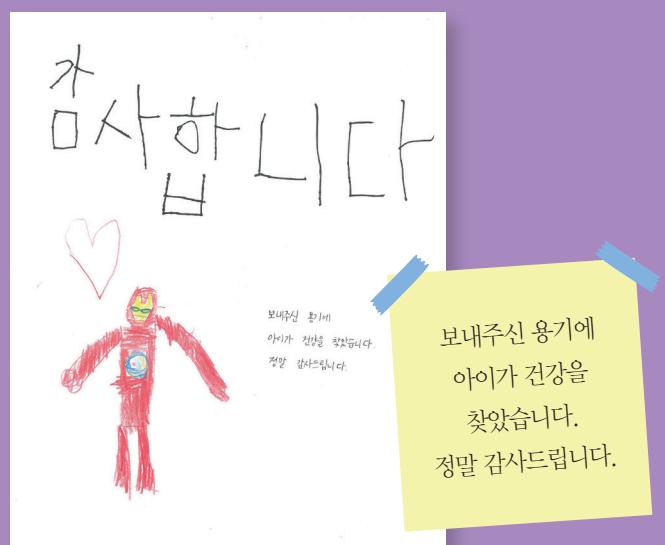
이 과정을 겪으며 기증해주신 분처럼
다른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풀어주신 선의를 직접 되돌려드리진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에게
돌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항상 기증자님과 기증자님의 가족에게
앞으로 많은 축복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수혜자 이영준(가명) 어린이



보내주신 용기에
아이가 건강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기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1팀 김태희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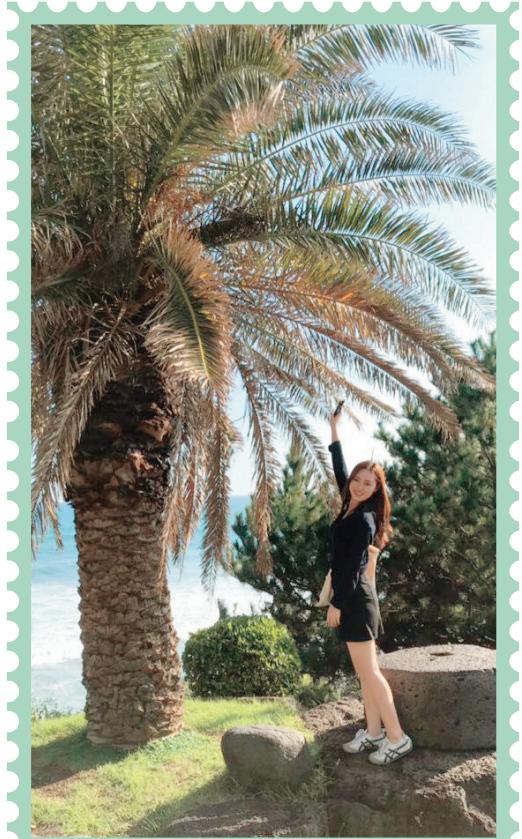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희 코디네이터입니다. 저는 혈액암 환자와 비혈연 기증자 간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란, 혈액 세포의 어머니 세포로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면역세포 등으로 자가 복제 및 분화하는 세포입니다. 혈액암 환자분들은 조혈모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용해 혈액세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요. 조혈모세포 이식은 비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소멸시킨 후 건강한 기증자분들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혈액암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기증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 생명을 살리는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시거나 회사 몰래 진행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생소하기 때문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분들은 기증자분들에게 세상 앞에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라며 고마워하십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기증자분들을 보면 저 또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증자분들의 체력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기증자분들은 흔쾌히 기증 절차를 따라와주시는데요. 간혹 혈관이 약한 분께는 중심정맥관에 관을 삽입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관을 삽입하게 되면 말초혈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통증이 더할 수밖에 없는데도, “제가 혈관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죠” 하며 웃으시는 분을 보면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협회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여자 소아 환자분이 기증자분께 보내는 편지와 사진 몇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혈액암 치료 당시 모자를 눌러쓰고 찍은 사진, 그리고 이식 이후 양갈래 머리를 한 채로 웃고 있는 환자분의 사진에 자꾸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한 아이에게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날을 선물해 주신 기증자분과, 앞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환자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끓고 뿐듯했습니다. 또한 제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증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이 이식을 받고 하루빨리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척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기증자가 많아지고, 더 많은 환자가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방에게 기꺼이 건네주는 일’이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일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KMDP 대학생 서포터즈 5기

‘시나브로’ 를 소개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함께할 KMDP 대학생 서포터즈 5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019 KMDP 서포터즈 5기 ‘시나브로’는 단장 김병철을 비롯해 오프라인팀 13명, 온라인팀 4명까지 총 17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청단식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자체 기획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의 필요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 모두 투철한 봉사 정신과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홍보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번 5기의 팀명인 ‘시나브로’와 같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누구나 기증희망 등록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및 인식 개선에 힘써 줄 ‘시나브로’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KMDP 대학생 서포터즈 5기 ‘시나브로’

단장 : 김병철(건국대, 의학공학)

부단장 : 홍화수(단국대, 간호학)

김교현(중앙대, 간호학), 김정인(아주대, 간호학), 김현희(경희대, 산업경영공학), 박은서(순천향대, 임상병리학), 박의범(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 안태환(위덕대, 간호학), 오세민(공주대, 간호학), 유가은(성신여대, 사회복지학), 유시영(건양대, 임상병리학), 이상호(충청대, 간호학), 이수연(성신여대, 간호학), 이수현(순천향대, 임상병리학), 이유진(한림성심대, 간호학), 조민영(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 허유림(중앙대, 사회복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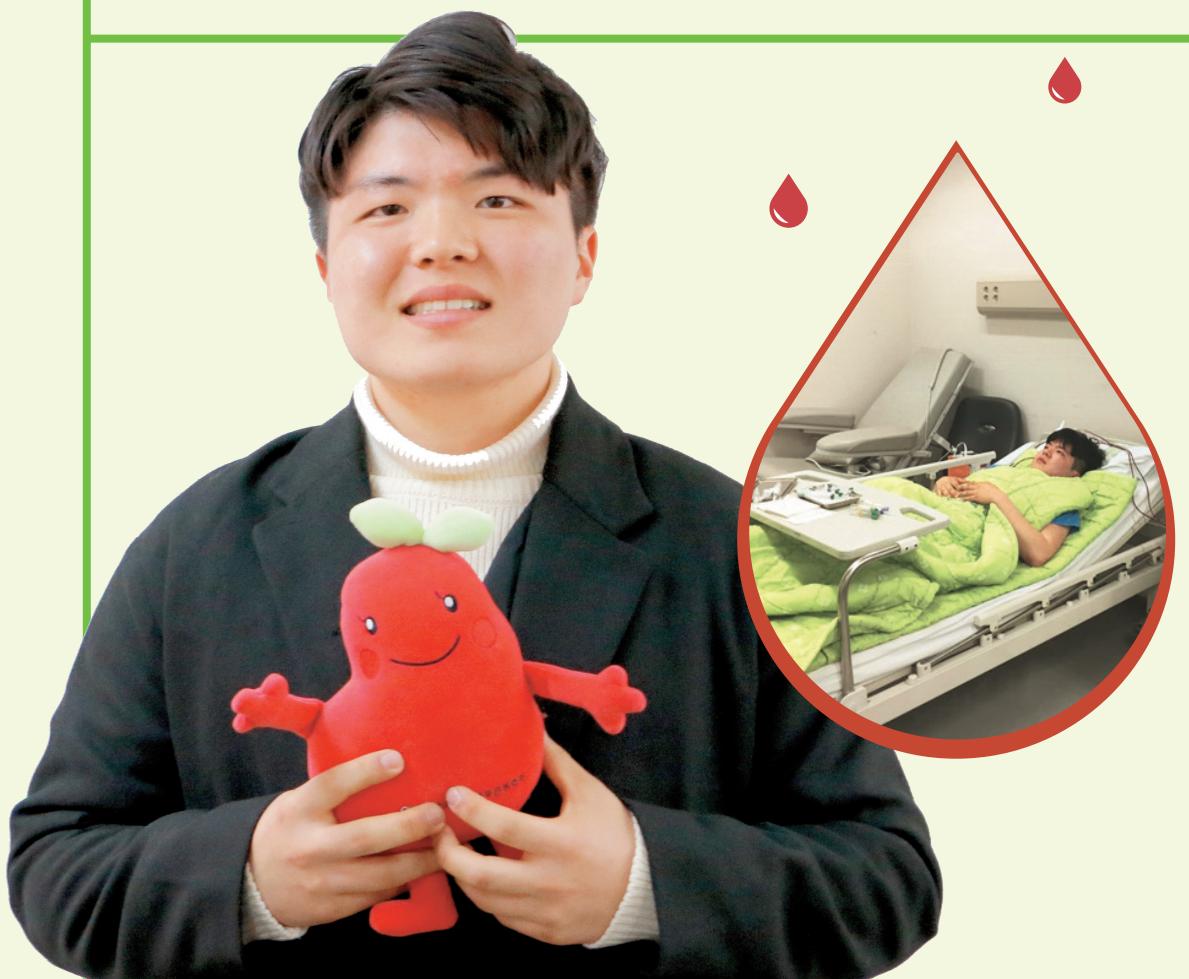
협회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mdp0311에서 서포터즈 단원의 인사말도 만나보세요!

현혈에서 한 걸음 더,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

조혈모세포 기증

안녕하세요. 2019년 KMDP 대학생 서포터즈 5기 ‘시나브로’에서 활동 중인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안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현혈을 해왔는데 2015년 말 현혈의 집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둑려 포스터를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기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연락이 왔고,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이를 계기로 KMDP 대학생 서포터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 기증은 여러분이 기증만 결심하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내 가족, 친구,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식을 받지 못해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어머니가 많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주시겠습니까? 이상 KMDP 대학생 서포터즈 5기 ‘시나브로’ 안태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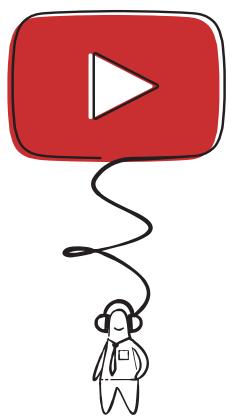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대사, ‘닥터프렌즈’!

글 | 이낙준



‘닥터프렌즈’는 유쾌한 의사 선생님들이 그간 궁금했던 의학 상식, 건강 정보를 친구처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각박한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입니다.

‘닥터프렌즈’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친밀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사들은 짧은 진료 시간 때문에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할 수 없고, 진료 내용을 전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환자 또한 짧은 진료 시간과 딱딱한 진료 환경 탓에 본인의 증세를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의료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지만,



젊고 유쾌한 의사 선생님들이 뭉쳤습니다!
친구 같은 의사들의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지킴이 ‘닥터프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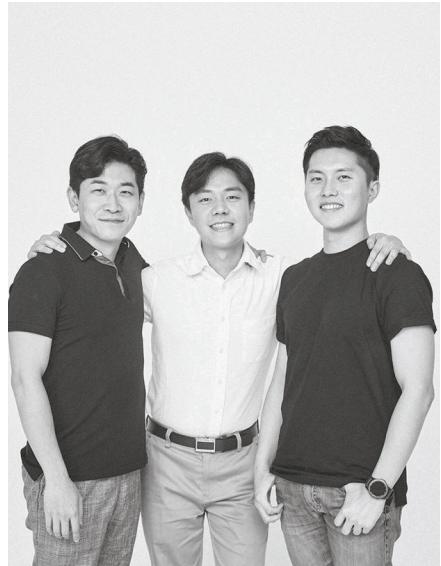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정보들이 범람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의료 정보를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오진승(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창윤(내과 전문의), 이낙준(이비인후과 전문의), 세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닥터프렌즈’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틈날 때마다 모여 의논하고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사와 병원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정확하고 검증된 의학 상식, 건강 정보를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의사와 환자가 더 친해질까?’ 또한 미국에서 멀티미디어를 전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심혜리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닥터프렌즈’의 홈페이지와 로고 제작, 영상 촬영과 편집, 썸네일 제작을 통한 콘텐츠의 매력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김진실(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감사로서 ‘닥터프렌즈’에 따끔한 충고와 조언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닥터프렌즈’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고, 구독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닥터프렌즈’ 영상의 목적은 권위적인 태도로 딱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보고 싶은,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익하고 건강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낙준 선생님 본인이 직접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던 사연 또한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했는데, 이 영상은 감사하게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한 기증희망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닥터프렌즈’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닥터프렌즈’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더불어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많이 기대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왼쪽부터 우창윤, 이낙준, 오진승

KMDP NEWS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더 많은 분에게 새 생명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조혈모세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일반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현혈증 2만 4천 매 기부

2018년 12월 20일부터 1월 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현혈증 2만 4천 매를 기부했습니다. 이 현혈증은 조혈모세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기부해 주신 것으로, 혈액암 환우 단체와 전국 각지 병원 등 총 24개 기관에 1천 매씩 전달하였으며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우분을 위해 사용됩니다. 현혈증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02 '닥터프렌즈' 이낙준, 오진승, 우창윤 전문의,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대사 위촉

2019년 1월 11일, '닥터프렌즈'를 KMDP와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닥터프렌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 3인으로 구성된 현직 의사들로 일상 속 의학 상식들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준 님은 KMDP를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이후, 10년 후인 2016년에 실제로 기증까지 한 분입니다. 이낙준 님은 자신의 기증 경험담을 유튜브에 공개한 후, KMDP로 기증 등록을 위해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진승 님과 우창윤 님도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을 마쳤으며, 수익금 365만 원을 기부,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03 KMDP 대학생 서포터즈 5기 '시나브로' 창단식

2019년 2월의 마지막 날, KMDP 대학생 서포터즈 5기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벌써 5기째를 맞이하는 이번 서포터즈에는 '시나브로'라는 팀명이 붙여졌는데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시나브로' 개선해 나가며 많은 분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포함해 '시나브로'의 다양한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04 2019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

2019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된 2019 제60차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우수한 석학이 한자리에 모여 혈액 질환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과 논점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바탕으로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이 완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05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임 '부·울·경 징검다리' 마라톤대회 참가

2019년 3월 17일, '부·울·경 징검다리' 회원들이 부산에서 열린 'KNN 환경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기증 전과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징검다리'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주신 분들의 모임으로 2003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중 '부·울·경 징검다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소모임으로 2012년에 만들어졌으며 이후 광주-전남, 대전-충청지역 모임도 생겼습니다. '부·울·경 징검다리'는 주요 활동으로 기증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에 참석해 기증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기증 경험담을 나누는 등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06 2019 KMDP 춘계 체력단련

2019년 4월 19일, 춘계 체력단련을 진행했습니다. 남산 야외식물원을 비롯해 N서울타워, 남산골한옥마을 등 남산 일대를 돌아보며 체력단련은 물론 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에도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등 수많은 혈액암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겠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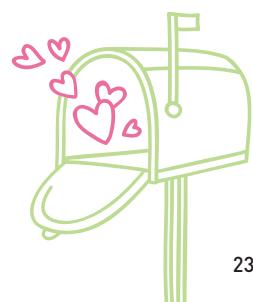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임직원 및 '착한공모전' 당선팀(한동대), RCY 대구 지사(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호산대), RCY 경북 지사(경북보건대, 대경대, 동양대, 안동과학대, 영남이공대), RCY 대전 · 충남 지사(대전보건대, 을지대 대전캠퍼스), 대전대 로타렉트, 강원대 도계 · 삼척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경운대, 광주보건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등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 및 단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문의_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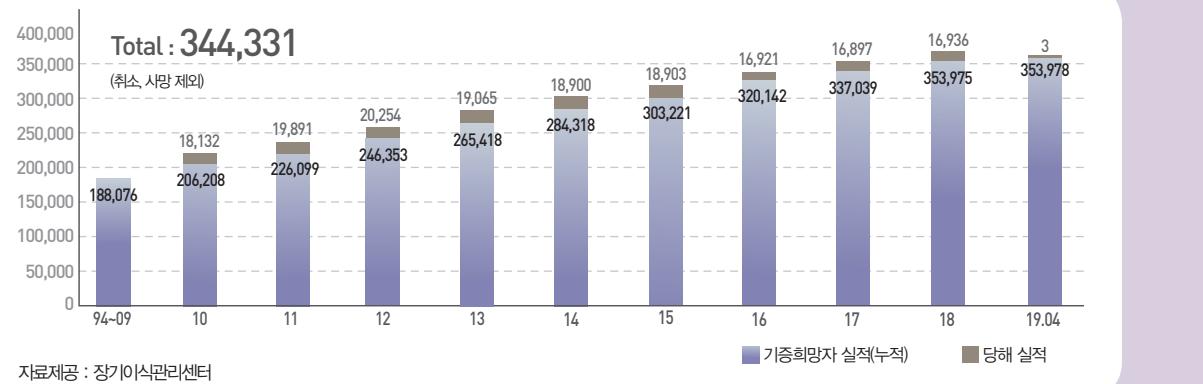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2018년 11월~2019년 5월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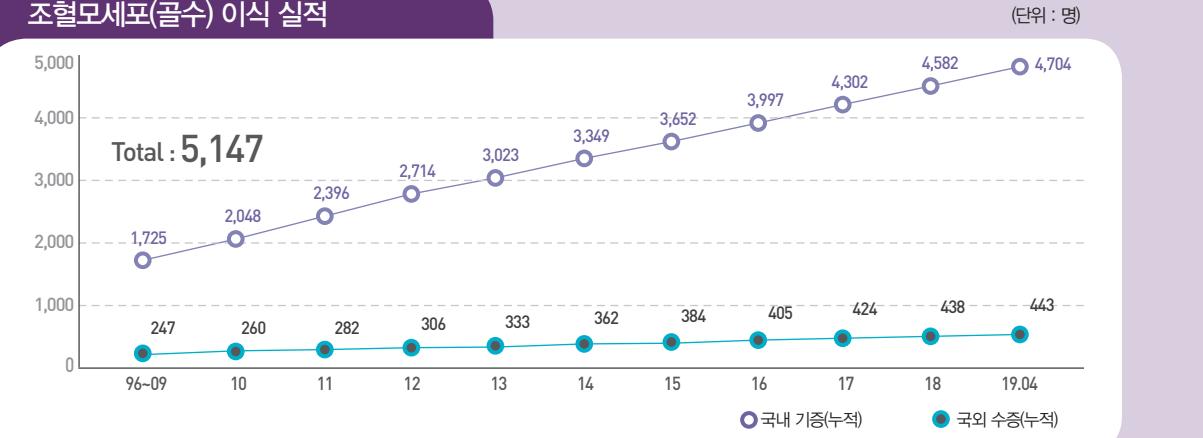
조혈모세포 관련 통계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등록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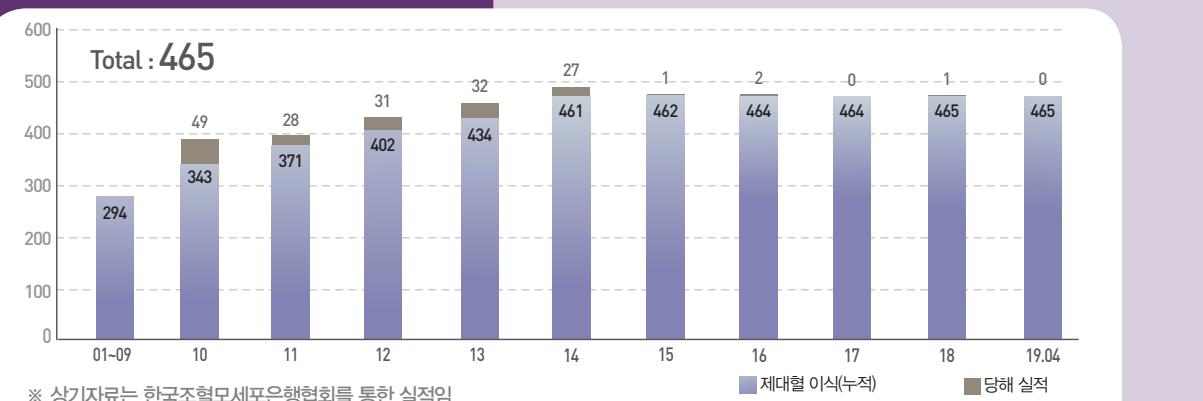


자료제공 : 장기이식관리센터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기증 제대혈 이식 현황



※ 상기자료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한 실적임.

※ 제대혈은 2014. 10. 1부터 국내 공급을 중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함.

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록 이후 우리협회를 통해 실제로 기증하여 주신 분들의 성함입니다.(1996 ~ 2019. 5 현재까지)

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좋은 소식 전합니다

VMS 봉사시간 인정

조혈맘 인형 만들기

조혈모세포란 모든 혈액을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로써 이 세포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백혈병 등 혈액암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혈액암은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 완치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혜자와 기증자의 유전자형이 일치해야 하며 이 확률은 기적과도 같은 2만분의 1입니다.

2만분의 1이라는 기적의 확률을 뚫고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수혜자의 쾌유를 위해 <조혈맘 인형 만들기>로 당신의 사랑과 응원을 나누어 주세요.



〈구글폼 신청서〉



- ◆ 인형 종류 : 조혈맘, 적혈이, 백혈이, 소판이(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캐릭터)
- ◆ 제작 시간 : 30분~1시간가량
- ◆ 만드는 방법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유튜브 참고(별도 제공)
- ◆ 후원금 : 1set당 30,000원(후원 계좌로 직접 이체)
- ◆ 신청방법 : 전화 신청/QR 코드를 통한 구글폼 신청서 작성
- ◆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02-737-5533 (내선114)

완성품이 회수되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만들기 키트 전달 및 회수 비용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부담합니다. (우체국착불택배로 회수)

프로그램 참여는 전화, 구글폼 신청서 작성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구글폼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혈맘 인형 만들기로 따뜻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성된 인형들은 조혈모세포 이식 수혜자에게 전달되며,

후원금은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쓰입니다.

또한 기업 등 단체 신청도 가능하오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 Q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안내

매월(3월~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증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페이스북 그룹(징검다리-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과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서울 · 경기 총무 박철희 010-2620-0079
- ▶ 대전 · 충청 총무 임대영 010-9421-5936
- ▶ 부산 · 울산 · 경남 총무 이호영 010-8889-5723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기업후원회원



2. 일반후원회원 ('18. 11. 01. ~ '19. 04. 30.)

후원액	회원명 (가나다 순)
3천 원	이광선, 장영미, 조혜원, 익 명
5천 원	김선미, 박용성, 이국남
1만 원	김용신, 김우재, 김현미, 남기대, 노분남, 유상재, 윤정선, 윤필이, 이승규, 이연우, 이재혁, 이현철, 익 명
2만 원	김영현, 김형기, 박정욱, 안주영, 오해인, 유경선, 이종관
3만 원	강공순, 박태훈, 박형식, 유제연, 이대우, 이태금, 조예림, 하관희, 흥규진
5만 원	박성령, 박후근, 서혜경, 이봉희, 이지우
7만 원	홍성환
10만 원	김관수, 오동한
20만 원	노봉수, 이종찬
50만 원	이상희
100만 원	장영웅
180만 원	김분야

3. 정기후원회원

('18. 11. 01. ~ '19. 04. 30.)

월정기후원액	회원명 (가나다 순)
1천 원	강슬기, 강행경, 김미란, 김수호, 김은진, 손승완, 손진화, 유현철, 이은지
2천 원	박상실, 박세림, 박수경, 박철희, 오덕교, 유승수, 이상현, 이언욱, 이용섭, 임명희, 전수진, 허인결
3천 원	곽영태, 김미영, 김선정, 김수동, 김영자, 김지연, 박진술, 양철호, 이태찬, 이형희, 전도석, 조성호, 흥유선
5천 원	강동우, 강용래, 강원구, 강형석, 고현아, 김대중, 김미소, 김미현, 김민지, 김순영, 김예래, 김은숙, 김은실, 김은혜, 김재영, 김지훈, 김진관, 김정범, 김희, 박미라, 박설화, 박시원, 박윤희, 박천우, 박태진, 박형민, 사공주, 성진기, 신미란, 양 컨, 오현숙, 월용식, 원령식, 유영철, 윤현미, 이금주, 이동호, 이상아, 이수경, 이수현, 이은화, 이정호, 이지영, 이하슬민, 이하승, 이현아, 장경호, 장영석, 정달영, 정성미, 정재원, 정진오, 조성빈, 조정희, 조흘체, 차종철, 차형덕, 최강빈, 최사린, 최승현, 최연정, 최유나, 최윤철, 최은진, 하세린, 한순우, 함경지, 허미경, 흥경식, 흥왕연, 흥원철, 흥은선, 흥정환, 흥지원, 그린피언티
6천 원	권정미
7천 원	정은장
1만 원	강득록, 강인보, 고영일, 고현종, 공미아, 공지현, 권명순, 권정도, 김권중, 김기희, 김도희, 김동휘, 김병주, 김병한, 김봉규, 김상우, 김상철, 김상현, 김성중, 김세진, 김소라, 김영재, 김유성, 김은경, 김은아, 김인숙, 김정수, 김정현, 김진우, 김진웅, 김태현, 김태현, 김학기, 김현엽, 김혜민, 김혜정, 노구동, 문병영, 민병욱, 민주영, 박상현, 박석환, 박성윤, 박세웅, 박승노, 박이웅, 박인결, 박인태, 박천영, 박준명, 박혁철, 박혜정, 방극희, 배원선, 백승진, 설현순, 성주현, 송병덕, 송종필, 송지섭, 송철호, 신명준, 안진혁, 안효섭, 양광열, 양병관, 어해숙, 오수현, 우영택, 유번림, 육전수, 윤미정, 음공관, 이기환, 이미란, 이민웅, 이민주, 이민호, 이상민, 이상환, 이서현, 이석영, 이수나, 이영재, 이영비, 이영호, 이영수, 이은진, 이재석, 이지연, 이자혜, 이창휘, 이한나, 이해정, 이화영, 이효석, 임선묵, 임선영, 장자식, 전성대, 정계숙, 정구현, 정기업, 정기운, 정승혁, 정영권, 정정선, 정정숙, 정진영, 정혜나, 조규섭, 조덕진, 조동형, 조하승, 주영애, 진현지원, 차선우, 차종주, 채은석, 천소영, 천진원, 최미월, 최상필, 최언화, 최용현, 한성심, 한성호, 한승희, 한연숙, 한영숙, 한원배, 한운탁, 함정은, 허안경, 현정희, 현 진 흥지은, 흥혜경, 향대만, 향 용, 엠엔에프코리아(주)
1만 1천 원	김현백, 이종무
1만 2천 원	임보나
1만 5천 원	문정숙, 박소라, 송진술, 오지연, 임한삼
1만 6천 원	정희선
2만 원	고유리, 고윤석, 공성진, 김경심, 김주성, 김충만, 노영경, 박금란, 서태호, 신용환, 오홍범, 이유진, 이재수, 이재호, 조향민, 한보석, 흥민지
3만 원	김범준, 김정환, 김자현, 문준호, 문형곤, 배인귀, 서동진, 신진경, 이경희, 이동호, 임성빈, 임재영, 최승관, 최우석, 지성문화재천사
5만 원	김병국, 김화원, 박봉태, 박영재, 이경숙, 이혁중, 장효식, 흥유성
8만 원	김종명
10만 원	최관호, 오피스퀵앤판들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여러분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하는 백혈병, 혈액암 환자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여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사업체 및 독지가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 구분

정기후원회원 : 매달 1개월 1천 원 이상을 자동이체(계좌이체, CMS 등)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일반후원회원 : 불특정적으로 일시 후원해 주시는 분(횟수, 금액에 제한 없습니다.)

단체후원회원 : 협회의 사업과 재정에 현저히 기여한(1회 100만 원 이상) 단체(일반, 법인 사업체 등)

후원금 납부방법

CMS 자동이체 : 후원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가입신청서 협회로 발송(E-mail : KMDP@kmdp.or.kr / FAX : 02-737-5536, 5537 / 우편) ➡ 전화 통화 본인 확인 ➡ 등록완료 ♥CMS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은행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매달 자동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CMS 등록을 위해 성함,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출금일, 예금주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MDP.or.kr) ➡ 나누는기쁨 클릭 ➡ 후원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클릭 혹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달해 드립니다.

은행 자동이체 : 거래은행 방문 ➡ 매달 약정액 자동이체 신청 ➡ 협회로 유선연락(02-737-5533) ➡ 가입신청서 작성 ➡ 가입신청서 협회로 발송 ♥은행 자동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은행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입금계좌 참고) ♥거래은행을 가실 때, 통장, 거래인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는 분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자동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 납부 : 협회로 연락(우편 또는 전화 02-737-5533) ➡ 협회 확인 후 지로용지 발송 ➡ 지로용지 작성 후 거래은행 납부

후원 계좌번호

입금하신 분의 성명 또는 단체명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예금주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국민은행 827-25-0014-731 신한은행 140-003-278130 우리은행 004-649426-13-001 농 협 047-17-002467 우체국 010017-01-013591

후원 회원 가입신청서

※ 우리협회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에 의거 '공익성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등록되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정보(필수기재사항)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 출금이체 신청(필수기재사항)

계좌 정보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명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연락처	예금주와의 관계
후원 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출 금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기관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

성 명 (단체명)	선택사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선택사항

■ 기관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

기관명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고유번호	105-82-09113	수납요금종류	후원금
대표자	민우성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전화번호	02-737-5533(114) 기증증진팀	메일	kmdp@kmdp.or.kr	팩스	02-737-5536.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출금기기명,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 이용 일정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기부금은 법인세법 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록 관련 업무에 활용 목적

- 수집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 폐기 요청 시까지 보관 : 정보 폐기 후 폐기기에 관한 기록 1년간 보관

- 신청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해당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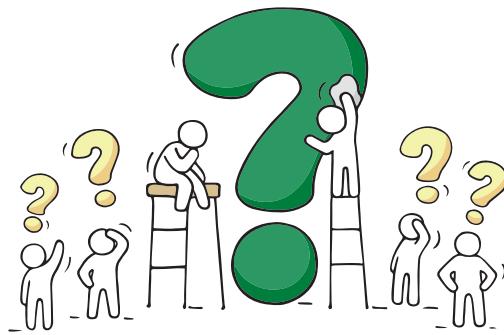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는 것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완료!

언제쯤 일치자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나요?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은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적 합성항원 (HLA)형이라는 유전자를 일치해야 하는데요, 비혈연간에 HLA형이 맞을 확률은 2만분의 1로 기적과도 같은 확률입니다. 그러므로 일치자가 나타날 특정 시기를 알 수 없답니다.

Q.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후에 일치 환자가 나타나면 기증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해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전염성 질병 등의 이상이 발견되거나, 여성의 경우 임신 중이라면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만 55세까지 가능하므로, 연령이 초과하면 기증희망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파기되어 기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조혈모세포의 안전한 기증과 이식을 위해 만들어진 기준으로 기증자와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때, 돈이 드나요?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준비 및 채취 과정(기증 전 건강검진 및 채취를 위한 입원 등)에서 기증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절 없으며,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또한 없습니다. 단, 기증을 위한 이동 도중에 발생하는 교통비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전날 과음, 감기약 복용 중

현혈 거부 경험이 있는데 할 수 있나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을 위해서는 만 18~40세 미만의 건강한 자로 아래와 같은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 ① HIV 감염 또는 에이즈(AIDS)
- ② 조절이 안 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 천식
- ③ 각종 악성종양
- ④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
- ⑤ 지난 1년 안에 2회 이상 발작 경험이 있는 간질
- ⑥ 심장 발작(Heart attack), 심혈관 우회로 수술, 기타 심장병
- ⑦ 간 질환, 간염, 성병, 결핵
- ⑧ 빈혈, 고혈압, 저혈압
- ⑨ 정신질환, 지적장애. 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음.
- ⑩ 자체중(남 : 50kg 미만, 여 : 45kg 미만)
- * ①, ②, ③, ④, ⑥, ⑧, ⑨ 항목은 현재 질병이 없고, 과거 어느 시점에서도 기왕력이 없어야 하며 ⑤, ⑦ 항목은 현재 질병이 없고 과거 1년간 기왕력이 없어야 함.

또한 전날 과음하거나 감기약 복용 중이어도 기증희망 등록은 무리 없이 가능하며, 철분 수치 부족으로 인한 경우(현혈 거부당한 경험) 역시 치료를 병행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 은행협회는 기증자 보호를 위해 '기증 적격성 판정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기증자 보호 위원회'를 운영하며 안전한 기증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경우 꼭 변경해 주세요!



기증희망 등록 이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주소,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님과 유전자(HLA)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락드릴 수 있답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꼭 변경해 주세요.

(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 등록자만 정보수정 가능)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www.kmdp.or.kr 접속 → 개인정보변경 신청 클릭 → 변경내용 기재 → 확인

전화로 변경하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02-737-5533, 내선 112)

잠들어 있는 현혈증을 기부해 주세요!



수혈로 인한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백혈병 및 혈액질환 환자들은 조혈 기능 저하, 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수혈이 꼭 필요합니다. 기부해 주신 현혈증은 지원규정에 따라 혈액질환으로 치료 중인 소아와 성인 환자들에게 보내어 집니다.

현혈증 기부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02-737-5533, 내선 114)

보내실 곳

(0433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앞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본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실 내용은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 백혈병 등의 환자 투병 수기, 조혈모세포 이식 및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교양, 사회교육, 수필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우리나라의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택된 수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